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파시즘을막기위한노동자들의전 쟁

스페인에서서사건에대한국제노동자협회사무국의보고

세계산업노동자연맹

세계산업노동자연맹  
파시즘을막기위한노동자들의전쟁  
스페인에서서사건에대한국제노동자협회사무국의보고  
1937 년 7 월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1937 년 7 월

# 차례

1936 년 7 월 19 일 이후 안티파시스트스페인의 발흥 . . . . .	3
아나키스트들과 생디칼리스트들의 위치 . . . . .	3
CNT 가 만든 길 . . . . .	4
반혁명이 모습을 드러내다 . . . . .	6
모든 권력을 정부로! . . . . .	6
테러 캠페인 . . . . .	6
카탈로니아에서의 분쟁 : 피레네 방면에서 . . . . .	7
롤란 코르타다의 죽음 . . . . .	8
노동자들과 CNT . . . . .	9
다시 되돌아 온 평온 . . . . .	10
전투가 일어난 날들의 문건들 . . . . .	11
경찰에 대한 호소 . . . . .	12
CNT 와 FAI, 그리고 트로츠키주의 . . . . .	12
CNT 와 FAI 에 대한 투쟁가들의 성명 . . . . .	14
카탈로니아의 현재 상황 . . . . .	14
스페인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CNT . . . . .	16

## 1936 년 7 월 19 일 이후 안티파시스트 스페인의 발흥

스페인이던 어디서건, 민주적 부르주아들은 파시즘을 몰아내는 데에 있어 무능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아사나 정권은 성직자들과 군인들의 반란을 대비하는데 있어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치즘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했다. 한편, 1936 년 7 월 19 일에는 강력한 대중 운동이 스페인 군부의 폭동을 막아내는 것을 성공했으며, 만약 반역자 장군들이 사라고사, 팔마, 세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화국 당국의 실패로 인한 것이었다. 대부분 지역의 반군은 아사나 정권에서 가장 가차 없이 박해됐던 혁명적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인해 격퇴됐다. 스페인 혁명적 노동자들의 노동 조합 연합체는 바로 CNT 이었다. 그들의 전술은 7 월 19 일 카탈루냐에서의 승리를 가져왔다. 스페인 경제에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의 승리는 파시즘에 대항한 전쟁을 진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거리에서의 승리 이후, 인민의 민병대 부대들은 반군에게 점령당했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전진했고, 후방에서는 경제 생활에 대한 사회 변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주도권을 잡은 것은 노동 조합이었다. 스페인에서의 사회 변혁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이는 노동자들이 지역 경제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국가에게 남은 기능은 이미 실현된 사실을 승인하는 것뿐이었다.

## 아나키스트들과 생디칼리스트들의 위치

그 순간의 가능성을 보고, CNT 는 자신들의 목표인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를 즉각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CNT 는 신디케이트와 노동 조합을 통해 대규모 중규모 산업 시설들을 집산화하는데 착수했고, 구 국가 체제를 노동 조합 통제하의 새로운 경제, 정치, 문화적 유기체로 교체할 것을 선언했다. 이 문제에 대한 CNT 의 입장은 7 월 19 일 이전에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지만, CNT 만으로는 이 책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나키즘적 노동 조합과 사회주의적 노동 조합 (CNT 와 UGT) 의 혁명적 동맹이 제안되었다. CNT 는 UGT 가 7 월 19 일 이전에는 카탈루냐에서 주로 활동하는 노동 조합이 아니었으며, 그 이후에는 온건한 프롤레타리아들과 하위 중산층 전체의 피난처가 됐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회에서 자신들과 동등한 대표권을 부여했다.

마드리드 폭전에서 전투가 격화되고 수도를 방어하는 것이 전쟁의 매우 중요한 점이 되었을 때 (사회주의자들과 부르주아들의 정부는 발렌시아로

떠남), CNT 는 중앙정부를 대체하는 방위위원회를 형성할 것을 요구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공화주의자들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CNT 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파시즘에 맞선 인민의 단결을 원했으며, 그러한 연합을 결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라고 여겼다. 인민의 연합이 파시즘에 맞서는 것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 CNT 는 스스로의 전술을 재쳐두고 중앙정부에 대표 되기로 동의했다. 마드리드의 노동자들은 파시즘으로 향하는 길을 막기 위해 두 번째로 결집했으며, 마드리드는 구원됐다.

7 월 19 일 이후, CNT 는 희생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최고의 무장 조직들이 전선에서 죽어나갔으며, CNT 는 자신들의 사회적 목적을 무조건 즉각 실현하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강력한 혁명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페인 대부분 지역에서 쉽게 행해 질 수 있었던 그들의 독재 체제 형성도 하지 않았다. CNT 는 CNT 를 적대 조직으로 간주하며 그렇게 취급하던 다른 반파시스트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전통적 원칙인 자유와 자유롭고 자발적인 협력에서 일관되게 영향을 받았다. CNT 의 의심 없음, 다른 자들에 대한 관용적 인민과 일 단 양보하려는 자세, 그들의 목표를 향한 압박감은 구체제의 직업 정치인들 (공화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에게 약하다는 표시로 비취졌으며, 그들은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계획을 밀어붙이고, 노동자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줄이고, 오래된 특권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이용했다. 그리고 노동자들, 특히 카탈루냐에서는 불만이 커져 갔다. 그것이 아나키스트들이 그들의 힘과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5 월 3 일에서 6 일까지 이어진 비극적인 일들의 근원이었다.

## CNT 가 만든 길

CNT 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전체주의적 국가나 독재적 성향을 갖춘 인물의 몇몇 정당의 책무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경제 조직의 책무라고 여겼다. CNT 가 7 월 19 일 이후로 다른 반파시스트 집단에 대한 이해를 하는 정책을 펼치고 공통의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수많은 희생을 했던 것은, 이러한 방식이 자유지상주의적이고 반독재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방식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관용, UGT 와의 화해는 건설적인 성향을 띠었고 긍정적 목표를 향해 있었다.

“사회주의적인 면에서 국가 경제의 재건을 위해 그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조직은 없다.”라고 CNT 의 발렌시아 지역 기관지인 Fragua Social 에서는 썼다.

“집산화의 움직임은 부르주아들이 그들의 경제적 힘을 잃은 순간부터 급격하게 추진되었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은 공장, 사유지, 광산, 운송수단을 장악했다. 이는 노동자들 마음속 성숙한 이념의 자연스러운 결

르지 않고, 절대군주정을 되돌리려 하며, 이는 우리 인민의 역사와 전통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상당한 시간 동안 반파시스트 진영의 단결을 위태롭게 했던 도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CNT 는 오로본 페르난데즈가 1934 년에 이미 확립하고 1936 년 5 월 대회에서 정한 노선에 변함 없이 충실했다. 그는 모든 망설임과 생각의 충돌들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확립해 냈고, 그 모든 특수한 이익들 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 CNT 와 협업하는 사람들 중 회의론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당당히 주장해 나갔다. 오로본 페르난데즈는 말했다.

“스페인 부르주아들은 자유주의라는 가면을 집어 던졌다. 유럽에서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반혁명의 예시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오늘날, 그들은 전체주의 국가의 도움 아래 경제적, 정치적 독점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한다. 프롤레타리아들에 맞서 위협적으로 고개를 쳐 들고 공격해 오는 이적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강고한 프롤레타리아들의 연합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립에서 필연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패배를 이겨 내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승리를 노려야 하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에 대한 최초의 치명타를 날려야 한다. 단결을 향한 투쟁의 선두에 우리 스스로를 앞세우는 것은, 혁명을 향한 길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지 않고 교조적 편견 없이 바라본다. 이는 혁명에 대한 것이지, 이런저런 원칙에 대한 학문적 논의에 대한 것이 아니다. 강령은 하나의 고정된 계명이 아니라 현실의 긴급함과 유동적인 면에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강령이 혁명이 일어난 뒤의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의 뿌리 내림을 보장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와 그 지속자인 파시즘의 완전한 패배를 보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착취와 계급적 특권이 없는 민주적 정권을 보장할 것이며, 최고로 좋은 의미로 자유지상주의적 사회로의 길을 활짝 열어 줄 것이다.“

하지만 상호이해는 어려울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두 조직은 서로를 적으로 여겼으며, 한 조직은 혁명적 대중의 편에 섰고 한 조직은 압제자들 편에 섰기 때문이다. 1933년, 스페인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잃기 시작했을 때와 서아비로 소 몇몇 문제들에 대한 재접근이 가능했다. 그리고 여전히 긍정적 방향의 상호이해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수많은 부르주아들이 그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으로 피신했다. 스페인에 근거하지 않은 외세가 반파시스트적 스페인과의 연대를 과시하며 이득을 꾀하려 하는 정치적 흐름도 UGT 가 퇴보하는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NT는 1934년 이래로 CNT 조합원들과 함께 같이 탄압을 당했으며, 오늘날에는 프랑코도 적 때들과 함께 맞서고 있는 UGT 의 사회주의적 노동자들에 게 끊임없이 함께 하자 호소하고 있다.

## 스페인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CNT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의 비극적인 사태가 있던 이후, Solidaridad Obrera 바르셀로나 지부는 다음과 같은 글을 펴냈다.

“모든 민중 운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안겨다 준다. 이번 에 일어났던 사건들에서 우리는 설령 반대되는 주장이었다 할지라도 카탈로니아 사람들의 저항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카탈로니아인은 모든 불의에 맞섰다. 아마 이것이 카탈로니아 가 이베리아 반도 아나키즘의 요람이면서도 항상 그것을 지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카탈로니아 사람들의 자유지상주의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노동자연합 (CNT) 는 이 반도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그랬듯이 곳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인위적으로 이 나라에 이념을 주입하려 시도했던 그 어떤 조직도 성공하지 못한 규모였다. 우리는 이런 사실이 자랑스롭다. 우리가 카탈로니아에 살고 있으며 카탈로니아의 발전과 행복을 염원하고, 편협하고 종파적인 카탈로니아주의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사회혁명으로 그들이 가는 길목을 트고 사람들에게 사회혁명의 가치를 알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던 중 CNT 와 FAI 가 발행한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FAI 와 CNT 는 독재를 원하지 않으며, 이를 강요하고도 입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구성원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한 독재를 허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독재 정권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파시즘과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인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무장한 노동자를 학살하고 싶어 하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권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들 스스로는 파시스트라 부

과일 뿐이었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가지게 된 첫 기회에 행정과 국가 경제의 방향타를 손에 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스페인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전통이 결여된 또 다른 프롤레타리아들은 이베리아 반도의 노동조합들에 존재하는 확고한 이념적 기반이 부족했을 것이기에, 그들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목표가 결여되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다른 혁명들 (다른 나라들에서의) 때처럼 우리 일반적인 목표의 부재 때문이 아니다. 스페인 프롤레타리아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 재건에 있어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강력한 대중 운동이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의 구체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 책 무를 이행하면서 CNT 는 한편으로는 산업의 국가적인 연방 현성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와 군사적인 과제의 달성을 위해 UGT 와의 동맹을 체결하는 것을 노력한다. 프롤레타리아는 경제 생활을 탄탄하게 조직해야 한다. 고립된 기업들과 특정 지점에 노력을 한정시키려는 시도는 비판 받아야 한다. 경제는 산업과 모든 산업들의 협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CNT 와 UGT 두 다른 노동조합 중 어느 쪽도 그 책무를 홀로 달성할 수 없음 또한 명심해야 한다. 두 단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UGT 는 CNT 에 그들의 지지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내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가지 형태의 경제 구조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두 세력들 가운데에서 상호이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산업들의 연방 창설과 CNT, UGT 간 동맹에 기여함으로써 이베리아 반도 경제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시도된 모든 사회적 실험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우리 사람들의 특별한 이라 할 수 있다.”

CNT 와 UGT 의 협력은 기회주의의 결과가 아닌, 스페인 생디칼리스트들과 아나키스트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들은 사회혁명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그들의 자유지상주의적인 열망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CNT 는 1936년 7월 19일 이래로 계속해서 이 길을 밟아 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하게도 그들의 행보에 장애물을 맞닥뜨렸다. 정치인들의 관료주의와 특권이라는 구체제의 수호자들은 자신들을 자유지상주의 혁명의 반대자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

## 반혁명이 모습을 드러내다

스페인의혁명적노동자들에게파시즘에맞선투쟁은자본가정권에맞선투쟁과합쳐지기시작했다. 소위‘민주주의국가’들의논란있는“원조”도, 러시아의외교적이득도 CNT 의그런관점을돌릴수는없었다.

전국의하류, 중류부르주아들과아직독립하지못한장인들, 개량적조직을따르는프롤레타리아들, 그리고특히나공산주의자들은과거의경제체제를회복하기위해적극적으로정책을펼쳐나갔다. 부패한부르주아민주정이파시즘에맞서는인민들의이상으로서소개되었다. 그리고파시스트들의반란이일어나고공화국당국의처참한실패가일어난뒤, 중요한경제기능을통제하고있던 CNT 와 UGT 대표들이참여하고반파시스트당들의대표들이중중참여했던혁명위원회들은대대적인공격을받았다.

## 모든권력을정부로!

좌익, 우익공화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과공산주의자들이공통적으로들고나오던슬로건이바로그런것이였다. 그들은기나긴전투와전투들이전쟁으로변모해나가는것을이용하여가장현대적인전투수단과적절한군사조직을만드는것을정당화했고, 그것을노동자들의혁명적계획과구상, 진취성을막무가내로제약하는데사용했다. 집산화의과정에서남게된“쁘띠부르주아”들에대한정의는더늘어났다. 농촌의지주들은노동자들의집단농장에맞서들고일어났다. 이러한다툼들의예시중하나발렌시아정부의공산주의자농업부장관과, CNT 와 UGT 에의해발렌시아지역의오렌지플랜테이션에형성된농장노동자들의집단농장간충돌이였다. 비슷한사례로바르셀로나의 CNT 조합에맞서공급부장관, 카탈루냐의혁명적노동자들이요구하던사회화에반대하고식료품에한정된분배의사회화를격렬히반대하던제 3 인터내셔널의추종자들간분쟁도일어났다.

## 테러캠페인

이러한상황은 CNT 에반하는공산주의자들에의해진행됐던테러캠페인으로이어졌다. 중부 (Center) 지역에서는지난몇달간 80 명의아나키스트동지들이비겁하게살해당했다. 마드리드방위군정 (이후폐지됨) 의공공질서위원회는 CNT 가다른곳보다강력하지않은중부 (Center) 지역에서가차없이 CNT 에대한탄압을가행했다. 알메리아에서는민병

이사태의끝에는승자도, 패자도없었다. 그어떤제재나처벌도내려질수없고, 내려져서는안되며, 내려지도록해도안된다. 하지만결국에경찰력에대한숙청은진행되어야하며, 그안의의심스러운사람들은배제되어야한다. 발렌시아중앙정부가파견한경찰병력의경우에는모두반파시스트적성향을가진민병대들로구성되어있고, 이들은자원해서전선에서싸워왔기에카탈로니아에서경찰로서활동할자격이있다. CNT 와 FAI 는이전에‘Tierra Liberta’라는민병대부대를이끌었던현카탈로니아치안당국수장을존중하는태도를보일것이다. 이제그들은모든도발행위가멈추고, 피해가기를바란다.

이전과마찬가지로, 사회혁명에투신한사람들은스스로를”공산주의자“라칭하는사람들에의해반대당하고저지당하고있다. 그렇지만스페인사람들이견뎌낸거대한희생에부응하기위해서는 1936 년 7 월 19 일 이전의정치, 경제적조건회복그이상의성과를거두지않으면안된다. 이전과마찬가지로, CNT 와 FAI 는인민들에게본질적인사회의변혁과그이념을전파하기위한노력을아끼지않을것이다. 두조직은반파시스트인민들의공동의적에대한투쟁이이루어지고있음에도그두조직의공극적목표는경쟁이나폭력으로실현될수없음을알고있으며, 지적이고조직적이면서도사회-문화적인창조적정책의결실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는것을알고있다.

스페인의아나키스트운동은파괴될수없음을천번이상증명해보였고, 이는 CNT 또한해당된다. 이들은수십년동안착취와억압, 지배의정권에맞서싸워왔다. 스페인의모든정부들은이들을말살하고싶어했다. 그러나그어떤살인과체포, 기소도민중의자유지상주의적열망을막아내지는못했다.

조용한음모, 그리고모든종류의국제언론을통한, 혹은국제언론의비방캠페인은결코목적달성하지못했다. 파리주재스페인대사인아라퀴스탄이그의힘을남용하여군주주의자들과아나키스트들의터무니없는협력조약에대해선전했던것처럼, 비방하는사람들은그저자들에게서등을들렸다.

CNT 는그스스로의위치를공고히하고있으며, 그들이활동하는효과는나날히증가하고있다. 그리고그들이원래소수였던지역에서의놀라운발전도관찰할수있다. 그들은그들의전술또한개선하고있다. ”CNT 와 UGT, 두스페인노동자들의조직은서로를집어삼킬작정으로움직여서는안되며, 합의를통해움직여야한다.“라고말한오로본페르난데즈의충고를그들은완벽히이해하고있다.

혁명적노동자들의동맹은상호이해를위한유일한길이다. 이것, 아니면저것을선택할지말지에대한의문의여지는전혀없다. 이것이외의상호이해를위해할수있는다른해결책은없다.

들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CNT와 FAI는 거리에서 피비린내나는 사태가 수그러들 때까지 노동자들의 대표들과 끊임없이 협상했으며, 중국에는 "사격 중지"라는 공통 합의 내릴 수 있었다. 그 어떤 경우에도 CNT와 FAI 사이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는 없었다.

## CNT와 FAI에 대한 투쟁가들의 성명

5월 4일 밤, 다양한 반파시스트 조직 대표들의 연설이 방송되었다.

그중에서도 마리아노.R. 벨라스케즈 CNT 전국 위원회 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지들, 아나키스트들, CNT 조합원들, 반파시스트적 노동자들이여. 이 중요한 때에는 7월 19일 때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라! 전선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화약을 단 1 온스도 낭비하지 마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프랑코는 우리에게 그 자신의 법을 강요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파시즘을 이겨 내는 의무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경멸을 표할 것이다."

세베리노 캄포스 CNT 지역 위원회 서기는 5월 10일, Solidaridad Obrera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써냈다.

"우리가 카탈로니아의 아나키스트들은 공격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알 수 있듯, 수세에 놓였으며 방어를 하고 있다. 우리는 후방에서 서로 학살해대는 것이 전선에서 모든 정치적 차이, 노동 조합의 다름을 뛰어넘어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으며,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을 원한다."

CNT와 FAI의 잘 알려진 모든 투쟁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외쳤다. 노동자 구획의 모든 노동자들은 이번 비극적인 사태가 도발 행위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한 깊은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바리케이드에서 내려와 노동을 재개했다.

## 카탈로니아의 현재 상황

서로 다른 반파시스트 조직들 간의 대대적인 싸움은 회피됐다. CNT와 FAI는 그들이 여전히 노동자들이 믿고 있는 유일한 노동자들의 조직이란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혁명 발전의 적들, 그리고 외세의 비밀요원들에 의해 그들 스스로가 제거되도록 내버려 두고자 하는 것 또한 아님을 증명했다.

대지휘관이었던 아나키스트, 마레토가 투옥된 뒤 수치스럽게 모욕당했다. 그는 5월 3일에 서야겨우 석방되었다. 무르시아에서는 비밀리에 설립된 공산주의자들의 체카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이미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여러 반파시즘적 주민들을 해치웠다. 스페인 대중에게 실질적 영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스페인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되는 중앙집권적이념을 가진 제3인터내셔널의 지배욕은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인 UGT에서 침투의 기회를 찾았다. 발렌시아에의 석을 가지고 있는 UGT 집행위원회는 UGT가 카탈로니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UGT 내에서의 총선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마드리드에서와 같이 아스투리아스에서도 패배했다.

낡은 부르주아 민주정의 수호자들, 즉 자본주의 질서를 선전하는 이들과 CNT를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은 특히 카탈로니아에서 점점 더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 카탈로니아에서의 분쟁 : 피레네 방면에서

이미 3주 동안 계속됐던 지난 카탈로니아에서의 정부의 위기 상황 동안 이미 언급된 반대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CNT는 스스로 반대 세력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반파시즘 세력의 단결을 위하여 혁명적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목표를 희생시켰다. CNT 조합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서 그들 스스로가 잘 규율되었고 조직되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도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태들이 일어났다.

피레네 방면은 노동자 민병대들로 인해 잘 방어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는 갑자기 노동자 민병대들을 대체하는 병력들로서 수천 명의 병력을 보낸 것이다. 이 병력들(카라비네로스)은 몇 달 동안 중앙 정부를 통해 신중히 선별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거의 두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지지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의 카탈로니아에도 달한 것은 엄청난 충격을 자아냈고, 그들의 전선 배치는 도발 행위로 간주되었다. 폭력적인 충돌들이 국경에서 나타났다. CNT와 FAI가 외국인 방문자들조차도 감탄할 정도의 사회, 문화적 성과를 거둔 작고 순수한 아나키스트들의 마을인 푸이그세르다가 새로운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다. 카탈로니아 아나키스트 운동의 대표격인 사중하나 인푸이그세르다 인민 위원회 위원장 마르틴이 중앙 정부의 편에 선 카탈로니아 분리주의자들의 총탄에 쓰러진 것이다.

## 롤란코르타다의죽음

그와동시에새로운사건이일어났다. UGT 의유명한전투적활동가였던롤란코르타다가오늘날까지이어진모든수색에도불구하고알아내지못한누군가들에게살해당했다. CNT 지역위원회는성명서를통해이와같은살인행위를비판했다. 그런데바르셀로나근교의몰린스에서 9 명의CNT 조합원이이살인사건과관련하여체포됐다. 그들에게서그어떤유죄의증거도찾아내지못하자, 그들은풀려나게되었다. 그뒤로 CNT 에대한비방이시작되었다. CNT 가우세했던농업중심지에서는방어를위한준비가시작됐고, 무장된노동자들에게의해치안이유지됐다. 부분적으로공산주의자들의영향력아래에있던남은경찰들이활동했던곳에서, 특히바르셀로나중심부에서아나키스트들은탄압을받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레네지역에평온은다시돌아왔으며, 바르셀로나의농업중심지에도마찬가지였다. 그이후, 카탈로니아와프랑스국경지대에배치될병력을 7 월 19 일이전수준으로줄이는것으로중앙정부와의타협이이루어졌다. 임의적으로체포됐던 CNT 조합원들은석방되었다. 그렇게잠재적인갈등은해결되는것으로보였다. 그러나이순간에도 5 월 3 일 ~6 일동안총돌을일으켰던도발행위가나타났다.

최근카탈로니아정부의장관구성에서공공질서와내부방위에대한통제는좌익부르주아정당의정치인인아이구아데의손에맡겨졌다. 공공질서위원회의위원장은공산주의자인로드리게스살라스였다. 두사람모두 1931 년에서 1934 년까지 CNT 조합원들을체포하고최대한의유죄판결을내리는것이주된관심사였던정치인이었다. 소인배부르주아민족주의자들과카탈로니아분리주의자들은혁명적노동자들의투쟁이자신들의정치적목표에대한가장큰장애물이라보았다. 그리고좌파부르주아들과제 3 인터내셔널에소속되어있던카탈로니아통합사회당 (P.S.U.C) 간의핵심원칙차이는거의없었다. 둘모두 1931 년에서 1934 년까지같은사회적계층으로구성되어있었으며, 공화정의반혁명적전통을추구했다. 스페인치안안전을책임지는조직들에소속되어있던그들의대표자들은그들의정치적이익을실현하기위해그힘을활용했다.

바르셀로나전화교환국은 CNT 와 UGT, 그리고카탈로니아정부의 일부대표단의통제아래에있었다. 5 월 3 일, 아이구아데는로드리게스살라스까지회하는강력한경찰들을보내어전화교환국을장악하라고지시했다. 그러나노동자들은경찰들이건물위층으로올라오는것을허용하지않았다. 격렬한전투가있었고, 건물앞에서는대대적인시위가있었으며, 몇시간지나지않아해당구역의 CNT 노동자들이자발적으로동원됐다. “혁명방위를위해거리로!”와같은말들이그들의구호였다. 그즉시 CNT 지역위원회와정부사이의협상장이조성되었고, 밤중에서로합의

한공격과고발은피해가는편이었다. 5 월 3 일바르셀로나에서일어난일련의움직임들은노동자들의자발적인행동이었고, 몇몇개인이나조직의일은아니었으며, POUM 의일은더더욱아니었다. 이문제에대한몇가지사실을논해보겠다.

공산당은자신들의주된비난대상인소위트로츠키주의자 (POUM) 에대해비난할기회를놓치지않았다. 이 POUM 은몇몇카탈로니아노동자들사이에서자생적으로나타난작은마르크스주의분파로서, 스탈린주의에반하는조직이었다. 우리는서로다른공산주의조직들사이의차이점들을세부적으로구분할수있는능력이있다고여기지는않기에, 이점에대해서깊게논하고싶지는않다. 하지만여러유기적형태의조합주의, 그리고그특유의아나키즘이념을통해 CNT 는다른반파시스트조직과는깔끔하고날카롭게구분된다.

현재 POUM 을구성하고있는사람들은 1936 년까지, 스페인노동운동이진보하기위해서는아나키즘운동을필수적으로배제해야한다고여겼다. CNT 와 FAI 는그들과그어떤공동점도없다. 1936 년부터그당은끊임없이좌경화의길을밟았고, 이내전의중요성에대해서아나키스트들과기초적인개념은공유하고있다.

그러나이두세력은본질적으로핵심적인분야에서는더이상동질감을느끼지않았다.

POUM 은분명아나코-생디칼리스트들의시위에참여한것은맞지만, 그들이 CNT 와함께도시에서움직였던것을비난하는모습은마치나치가유대인들을평화조약, 혁명, 반동등모든것에대한정치적희생양으로삼는것을떠올리게만든다.

우리는 POUM 과그어떤연결고리도없지만, CNT 는그들을반파시스트조직으로인정해줄것을요구했다. 5 월 9 일, Solidaridad Obrera 는경찰들이점령한 POUM 의인쇄소를다시 POUM 에게돌려줄것을요구했으며, 이는이행되었다.

POUM 과함께움직였던것, 그리고바르셀로나에서일어난일련의사건들에대한책임을묻는것은국제언론에퍼진또다른흑색선전이자비난이다.

이러한비극적인헛소문의또다른형식은이러하다. 이번사태에서 CNT 는 FAI 의아나키스트들에게통제받는입장이었는데, CNT 가그아나키스트들에반기를들어폭력사태를중단했다는것이다. 이것또한완전한상상일뿐이다. 5 월 3 일에서 6 일까지있었던모든의와토론을통해결정된것들과작성되고발표된선언문들은바르셀로나의모든자유지상주의운동의위원회들, CNT 지역위원회와 FAI 지역위원회, 자유지상주의청년단지역위원회등에의한것이였다. 그리고모든결정은만장일치로채택됐다. 노동자들의이모든움직임들은 CNT 나 FAI 로부터 비롯된 것이아니었으며, ‘바리다스’라고불리는도시노동자구획으로부터, 인민

명단을 요구했다. 이러한자들이 중앙정부의 훈령에 의해 배제되어야 한다고 명령이 내려온 것은 4월 13일이었다. 그러나 카탈로니아의 내무부 장관은 중앙정부가 내린 어떤 명령을 막았고, 파시스트들이 직위에 남을 수 있도록 용인했다. 동시에 그는 파시스트들을 색출하는 모든 위원회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굳혔다. 한편, 그는 특정 정당들의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 국가의 억압과 정권의 착취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최고의 보장책인 CNT와 FAI의 모든 조직원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 혁명적 힘을 부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다.

선언문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반파시스트 전선의 자신감 회복을 위하여! 파시즘에 대한 승리를 위하여! 체제적 탄압자인 아이구아데와 로드리게스에 맞서자! 모든 고위 경찰들에게 죽음을! 사회혁명만세!”

이 선언문은 CNT와 FAI의 지역 위원회, 자유지상주의 자청년단, CNT와 FAI의 바르셀로나 지역 위원회가 서명했다.

## 경찰에 대한 호소

CNT는 노동자들의 적인 아이구아데와 로드리게스 살라스의 통제 아래에 있는 카탈로니아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중요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한참 충돌이 벌어지는 동안 어떤 두 자유지상주의 단체들은 “당신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고, “이 시위는 당신들을 반혁명적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는 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방송된 호소문들 중 하나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기나긴 거리에서의 무력 충돌은 알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파시즘과의 투쟁에서 조직원들이 수많은 피와 힘을 쏟아부은 CNT의 완전한 파괴를 바라고 있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 경찰관들이여! 당신들도 알고 있듯, 당신들이 근거를 가지고 있듯, CNT와 FAI는 그대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반파시즘적 대의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의 자리는 7월 19일 때와 마찬가지로 민중의 쪽이다.”

## CNT와 FAI, 그리고 트로츠키주의

서로 다른 많은 조직들이 낸 호소문에는 바르셀로나에 평온이 돌아오게 된 뒤에도,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파시스트적 단결을 확립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반파시스트 전선에서 있는 조직에 대

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이구아데와 로드리게스 살라스가 촉발시킨 도발적 행위로 인해 3일 동안 지속된 유혈 사태는 카탈로니아 반파시스트 진영의 단결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처음부터 CNT의 태도는 순전히 방어적이었는데, 이는 1936년 7월 이래로 반파시스트 전선을 만들어내고 스스로의 큰 희생을 대가로 유지했던 것이 CNT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CNT는 스페인이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프랑코, 히틀러, 무솔리니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이나 키즘 운동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의 목표와 이상을 보류하기까지 했다.

## 노동자들과 CNT

5월 3일의 사건들은 카탈로니아의 아나르코-생디칼리즘 운동이 무엇인지 다시금 보여주었다. 7월 19일과 마찬가지로, 수 시간 안에 모든 노동자들이 총동원되었다. 이는 거리에서의 진정한 민중의 의사표명이었다. 도시의 모든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노동하는 곳은 CNT의 요새로 전환되었다. 병영, 경찰서, 공화주의 혹은 공산주의 민병대가 있는 곳의 노동자들은 CNT에 지지를 표명하거나 (산스와 산게르바시오의 경우처럼), 사리아의 공산주의자들의 병영과 같이 중립을 표명했다. 바르셀로나의 노동자들은 CNT와 함께했으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낡은 경찰들과 부르주아들, 공화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들의 구역과 도심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는 정확히 그들 정당들의 지지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경찰들은 대개 노동자들에 맞서지 않았다. 경찰들 대부분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으며, 대중이 흥분하거나 특정 사건들로 인해 도발 행위가 벌어져 유혈 사태로 번졌을 때만 극소수의 경찰이 CNT 조합원들과의 싸움에 끌려 들어갔다.

총파업은 그 즉시 일어났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만이 계속 운영되었다. 경찰과 공산주의자들은 몇몇 노동 조합 건물을 공격했고, 혁명적 노동자들도 공격받았으며, 노동자들은 경찰 건물, 여러 정당들의 당사들, 개량주의 성향 노동 조합의 건물에서 총격을 받았다. CNT 지역 위원회 본부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며칠 동안 적들의 공격을 받아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으로서 CNT는 또다시 귀중한 동지들을 잃었다. 이탈리아인 아나키스트 베르네리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집에서 체포됐고, 그 다음날 포로가 되어 총살당했다. 1936년 7월 20일, 파시스트들의 총탄에 사망한 프란시스코의 동생 아스카소는 도시 중심부에서 살해당했다. 프란시스코 페레르의 조카는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던 중 길거리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당했다. 그는 전선에서 부상당하여 지팡이를 짚고 가던 중이었다.

5월 5일에는 위원이 발렌시아로부터 도착했는데, 이 위원회는 UGT 집행위원회 위원 두명과 CNT 전국위원회 위원 두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록 이 위원회가 카탈로니아의 다양한 반파시스트 세력과 즉각적으로 교섭하기 시작했지만, 사태를 즉각 진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5월 6일 CNT와 UGT가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건 뒤에는 경찰과 공산주의자들이 CNT 가족세 노동조합 본부를 타격했으며, 그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것을 파괴했다. 다른 CNT 노동조합 청사들도, 특히나 상수도망이나 유통망을 담당하는 조합의 청사들은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었다. 도시 중심부에서는 다른 반파시스트 조직과 마찬가지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허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NT와 FAI 의 조직원들이 체포당하고 무장 해제되어 투옥되기에 이르렀다. 도시의 프롤레타리아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경찰 권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섰다. 산스에서는 격렬한 전투 끝에 헌병대 병영들이 점령되었으며, 400명의 경찰 병력이 CNT 조합원들에 의해 죄수로서 연행되었다. 병영들에서는 파시스트들과 군주주의자들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들은 인도적으로 대우 받았고, 평화가 되 돌아온 뒤에는 자유를 되찾게 되었는데 이는 CNT 가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정규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 다시 되 돌아온 평온

5월 5일 저녁, CNT 대표 1명, UGT 대표 1명, 좌파 부르주아 정당들 중 하나와 작은 농민 정당들 중 하나로 구성된 새로운 카탈로니아 정부가 결성되었다. CNT와 FAI가 내린 명령으로 인해 전투가 중지되고 바리케이드가 해체되자, 발렌시아의 중앙 정부는 5000명의 돌격 경비대를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하던 카탈로니아 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파견했다.

카탈로니아 자치에 관련된 헌법 조항은 영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중앙 정부가 임시적으로 카탈로니아의 공공 질서를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구아데장관과 로드리게스 살라스 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로써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CNT와 FAI를 탄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혁명적 노동자들의 악명 높은 적 두 명은 사라졌다. 경찰력과 반파시스트 순찰대를 통솔하고 발렌시아 중앙 정부에 의해 새로 임명된 공공 질서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들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그들의 공직의무를 다할 것임을 보장했다.

우리는 스페인 공산당과 부르주아 정당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스페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이 일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 동지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들이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의하면, “정부에 반대하는” 붕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확신에 가득 찬 유언비어는 CNT가 중앙 정부

는 물론이거니와 카탈로니아 정부에까지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CNT는 그 자체가 정부의 한 부분이었기에 정부에 맞서 봉기하지도 않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CNT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건해야만 했다. 그 시위와 투쟁은 혁명적 노동자들에게 대한도 발행위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당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어떻게 정의 하더라도 “무책임한” 선동가들의 짓이 결코 아니었다. 우리의 적들은 CNT의 무장한 전투원 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의 노동자들조차도 “무책임”하다고 성급하게 결론짓고 있다. 5월 3일 오후, 누구든지 이 사태를 목격하고 주목하며, 지난 70년간 스페인이나 키즘 운동에 비방을 가하듯 거짓말을 일부러 하고 있지 않다면, 이번 사태가 자발적인 민중의 움직임이자 우발적으로 일어난 봉기이며, 인민의 격렬한 항의 표시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정 노동 조합에 “트로츠키주의자”나 파시스트 선동가들이 잠입해 있었다면서 떠들어대는 자들은, 정작 그들의 확언을 근거하는 그 어떤 사소한 증거도 바르셀로나의 노동자들로부터 찾아낼 수 없었다.

## 전투가 일어난 날들의 문건들

충돌이 시작되던 때에, CNT와 FAI의 위원회는 카탈로니아의 상황을 묘사하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주민들에게 발표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카탈로니아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돌면서 여러 반파시스트 전선의 동지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다른 문제를 제쳐두고서, 전쟁과 혁명에 문제에 있어 카탈로니아 내무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모두에게 알리고자 한다. 혁명이 일어나는 초반에 중앙 정부는 법령을 통해 경찰 조직 내에 경찰 세력 안에 있는 파시즘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지금 내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아이구아데가 취임했을 때, 그는 이런 위원회들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경찰에서 파시스트적 요소가 일관되게 배제되고 있을 때, 카탈로니아에서는 장관과 몇몇 경찰서장, 경찰관들이 협력하여 이러한 모든 조치에 반대했기 때문에 파시스트들이 그들의 직무에 남아 있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런 훌륭한 보호 조치 덕분에 62명의 헌병대가 제로나 경찰서에서 국경까지 쉽게 도망치는 것을 허용했다. 바르셀로나 경찰서에서는 31명의 경찰관들이 중요한 서류들, 특히 해안요새화에 대한 서류들을 빼돌려 달아났다. 그런데 이들이 달아나기 몇 달 전, 이들이 이미 파시스트라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

“마드리드에 소재한 헌병대 중앙 사령부는 아우시아스 지역 병영에서 신병 40명이 탈출을 시도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사령부는 카탈로니아 헌병대에서 여전히 현역으로 복무 중에 있는 반동주의 찬동가들과 반동들의